

‘모시, 무명, 비단’의 어원

김무림 · 강릉대학교 국문과 교수

1.

국어의 어휘를 어원 차용의 관점에서 분류한다면, 우선 고유어와 외래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한자어(漢字語)를 제외하고, 외국어 어휘가 국어 속에 들어와서 국어화 되어 쓰이는 어휘를 말하게 되므로, 이에 따라 국어의 어휘를 다시 어원적으로 분류하면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셋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어(漢語)에 어원을 두고 있으면서도 국어에서 한자로 적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어(漢語)의 구어(口語)가 음성 언어의 차원에서 국어에 직접 들어온 때문이며, 이로써 한어(漢語)에서 한자(漢字)로 당연히 적히면서도 그 해당 한자의 독음(讀音)이 국어 한자음과 다른 까닭에 국어에서 한자어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어계(漢語系) 어휘는 당연히 외래어로 분류될 것이지만, 그 역사성이나 한어계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국어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차용어(借用語)라는 용어로써 이러한 어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어계 차용어는 국어의 역사에서 차용이 일어난 시기에 따라 고대 국어 차용어, 그리고 중세 국어 및 근대 국어 차용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대 국어 차용어는 ‘부터(〈佛陀〉), ‘분(〈筆〉), ‘먹(〈墨〉’ 등을 확실한 것으로 들 수 있으나, 차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어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尺〉), 살(〈矢〉), 베(〈뵈〈布〉’ 등과 같은 어휘의 경우는 괄호 속의 한자에 어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지만(김완진 1970), 그 차용 관계를 실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자음의 역사적 층위와 고대 국어 어형 간의 대응을 수립하기가 어려운 까닭입니다. 그러나 중세 및 근대 국어의 한어계 차용어는 음운 대응 및 문헌의 실증이라는 측면에서 비교적 객관적인 논증에 의한 확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중세 및 근대의 한어계 차용어로 알려져 있으면서 동일한 의미 영역을 이루는 ‘모시, 무명, 비단’을 대상으로 차용 관계의 실증성 여부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어원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중세 국어(15~16 세기의 국어)에서 사용된 어휘 가운데 현대 국어에서 고유어처럼 인식되는 ‘모시, 무명, 비단’은 각각 한어(漢語)의 ‘木絲, 木棉(또는 木綿), 匹段’ 등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심재기 1982: 59~60). 그런데 이들 어휘의 표제어가 국어사전에서 처리되고 있는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의 이들 어휘에 대한 표제어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국어대사전』

▪ 모시 「명사」

「1」 모시풀 꺾질의 섬유로 짠 피륙. 베보다 곱고 빛깔이 희며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인다. ≒저마포·저포02(紵布).

「2」 식물□=모시풀.

▪ 무명 「명사」

무명실로 짠 피륙. ≒면포02(綿布) · 명01 「1」 · 목면 「4」 · 목면포(木綿布) · 백목01(白木). 【<무면(번노) <<중>>木棉 · 木綿】

▪ 비단(緋緞) 「명사」

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을 통틀어 이르는 말. 가볍고 빛깔이 우아하며 촉감이 부드럽다. ≒견포(絹布)

「1」 · 단15(緞). 【비단<석상> <<중>>匹段】

즉 ‘모시’는 차용어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어원적으로 고유어로 처리되고 있으며, ‘무명’은 어원이 ‘木綿 · 木棉’에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차용어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단’은 국어사전에서 ‘<중>匹段’이라는 어원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표제어가 ‘비단(緋緞)’으로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한자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모시, 무명, 비단’은 중세 국어의 문헌에 이미 나타나므로¹⁾, 이들 어휘의 역사는 중세 국어 이전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입성(入聲) 탈락의 관점에서 보면 한어(漢語)에서 중고음(中古音) 이후의 한자음과 대응하므로, 고대 국어의 어휘로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고유어로 처리되고 있는 ‘모시’는 훈몽자회(중-30)에 ‘緋 모시비시 俗呼苧麻布又曰木絲布’라고 되어 있으며, 번역박통사(상-51)에는 ‘빅모시 뵈 白毛施布’라고 되어 있으므로 한자 표기인 ‘毛施, 木絲’ 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주목되는 것은 계림유사(12세기)에서 이미 ‘苧布曰 毛施背’라고 기록하였다는 점입니다. ‘모시’를 ‘毛施’로 적은 것은 한어(漢語)에 기반하지 않고, ‘모시’에 대한 국어식 한자 표기를 그대로 차용하여 옮긴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모시’에

1) 비단과 풍류와를 석식기 꾸며(석보상절/1449, 23-50), 비단과 노와 김과 眞珠 | 庫에 7득호고(월인석보/1459, 23-72), 또 굴근 무면 일빅 필와(변역노결대/16세기 초반, 하-67), 소곰 바들 무명을 아모디나 혼 필만 췌 바다라(순천김씨묘출토간찰/16세기 후반), 삼과 모시를 자버며(執麻裯내훈/1573)

대한 기록을 토대로 이기문(1991: 216)에서는 ‘모시’라는 우리말이 중국으로 차용되어 ‘毛施’로 적혔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의 난점은 계림유사를 제외한 중국의 문헌에서 ‘毛施’의 용례를 찾을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울러 ‘木絲’라는 어휘도 ‘모시[苧]’라는 의미로는 한어(漢語)에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모시’의 차용어 여부는 그 방향(국어에서 한어, 또는 한어에서 국어)이나 어원의 측면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계림유사의 ‘毛施’는 당시의 중국인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므로, 송대(宋代)의 한어(漢語)에서 구어(口語)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큼니다. 아울러 훈몽자회의 ‘木絲’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기록되게 되었는지도 아직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실증이 하나의 과제입니다.

문익점(文益漸, 1331~1400)에 의한 ‘무명’의 전래설이나 한어에서 ‘木棉’의 발음을 고려할 때, ‘무명’이 한어의 ‘木棉(또는 木綿이나 木縣)’에서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木’과 ‘棉’의 한어음(漢語音)을 시대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木’과 ‘棉’의 한어음

	〈중고음〉	〈근대음〉	〈현대음〉
▪ 木	muk	mu	mu
▪ 棉	mjen	mjen	mjan

중세 국어에서는 ‘무면’과 ‘무명’이 함께 나타나지만, ‘무면(번역노걸대, 16세기 초반)’이란 형태가 ‘무명(순천김씨묘출토간찰, 16세기 후반)’보다 50년 이상 시대적으로 앞섭니다. 그러므로 ‘무명’은 ‘무면’에서 변화했다고 할 수 있으며, 역시 ‘무면’이 근대 한어음(漢語音)과 운미(韻尾)가 일치하므로, 어원적인 형태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 국어의 초기 문헌에서부터 사용된 ‘비단(석보상절/1449)’이란 말

이 한어의 ‘匹段’에서 왔다고 하는 것은 황윤석(黃胤錫, 1729~1791)의 이수신편(理蔚新編)(1774년에 간행된 일종의 백과사전)에서 이미 밝히고 있으며, 한어(漢語)에서도 ‘匹段’이란 말은 ‘포백(布帛)’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말로서, 당대(唐代)의 문헌에 이미 나타나는 역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匹’과 ‘段’의 한어음(漢語音)을 시대별로 보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 ‘匹’과 ‘段’의 한어음

	〈중고음〉	〈근대음〉	〈현대음〉
▪ 匹	phjet	phi	phi
▪ 段	dwan	twon	twan

‘비단’이 ‘匹段’에서 온 것이라면, 입성이 탈락한 근대 한어(近代漢語)에서 차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²⁾ 그리고 중세 국어에서는 ‘비단’과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깁(훈민정음해례 합자해)’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이 두 어휘를 놓고 보면 ‘깁’이란 고유어에 ‘비단’이라는 차용어가 대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깁’이란 말은 바로 동사로 파생되어 ‘깁다’라는 말로도 쓰이므로, 고유어로서의 위상이나 역사성에서 ‘비단’보다도 높고 유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 ‘비단’이란 말은 근대 한어 ‘匹段’의 구어(口語)에서 차용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어에서 ‘비단’을 한자어 ‘緋緞’이라고 표기하게 된 것은 고시조(古時調)에 ‘緋緞 치마’라는 구절이 사용된 것을 보면 이미 근대 국어의 시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단’을 ‘緋緞’이라고 표기하게 된 까닭은 당시 언중

2)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단’이 아니고 유기음(차청음)이 적용되지 않은 ‘비단’이라는 점에서 한어 중고음(漢語中古音)을 기반으로 한 차용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운미(韻尾)의 입성은 설음 ‘ㄷ’ 앞에서 탈락되었다는 해석으로 선회하게 됩니다.

의 어원 의식이 작용했다고 하겠으나, 물론 올바른 표기는 아닙니다. 특히 한어(漢語)에서 ‘緋’는 ‘홍색(紅色)’을 의미하며, 더욱이 ‘緋緞’이란 용어는 옛부터 지금까지 한어(漢語)에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3.

지금까지 옷감을 지칭하는 어휘들인 ‘모시, 무명, 비단’ 등에 대한 어원 풀이를 하였습니다. ‘무명’과 ‘비단’은 한어계 차용어로서 각각 근대 한어의 ‘木棉’과 ‘匹段’에서 온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시’는 흔히 ‘木絲’의 한어 차용어로 알려져 있지만, 그 차용 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힐 수 없으므로, 고유어로 처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비단’을 국어사전에서 한자어 ‘緋緞’으로 표기하는 것은 비록 역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원에 맞지 않는 표기이므로 올바른 표제어 처리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국어의 역사에서 ‘모시, 무명, 비단’의 어휘에 대한 유구성을 검토한다면, 계림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하여 ‘모시’가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특히 이기문(1991: 239)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어의 ‘모시’가 고대 일본어에 들어간 기록이 보이므로³⁾, 국어 어휘 ‘모시’의 역사성은 고대 국어(특히 전기)로 충분히 소급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명’과 ‘비단’은 그 전래 과정을 고려한다면 ‘비단’이 앞서고, ‘무명’에서 변화한 ‘무명’이 가장 후대의 어휘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른 시기의 차용어로 생각되는 ‘비단’은 ‘匹段’의 어느 시기의 한어음(漢語音)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도 밝혀 둡니다.

3) 8세기의 일본 문헌에 ‘kara-musi’라고 되어 있다고 함.

참고 문헌

- 강신항(1980), 계림유사 「고려방언」 연구, 성균관대출판부.
- 김무림(2004), 국어의 역사, 한국문화사.
- 김민수 편(1997), 우리말 어원사전, 태학사.
- 김완진(1970), 「이른 시기에 있어서의 한중언어접촉의 일반에 대하여」,
어학연구 6-1, 서울대어학연구소.
- 심재기(1982), 국어어휘론, 집문당.
- 유창돈(1973), 어휘사 연구, 선명문화사.
- 이기문(1991), 국어어휘사연구, 동아출판사.
- 21세기 세종계획(<http://www.sejong.or.kr>): 한민족 언어 정보 검색

기타 자료 문헌 및 사전은 본문을 참조.